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4. 16. (목)  
(사진 15시 이후)**“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조달청, 강원도 청년·사회적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백 청장,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강원지역 경기 회복 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청년·사회적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애로사항 청취... 청년·사회적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강조**

강원지역 간담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회적 기업 10개 사가 참석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건의하고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신생기업이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청년 및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약자지원가점을 위한 위장·대리입찰 근절 대책 마련 ▲지방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공정한 경쟁과 판로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달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AI·로봇·기후테크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숨어 있는 유망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집중 발굴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민간투자사의 혁신스카우터 및 지방정부와도 협업해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진짜’ AI 기술이 혁신조달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AI 전용 심사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 혁신제품 기업 현장 방문...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제조기업 (주)레메디 방문

백승보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2021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제조기업인 (주)레메디(대표 조봉호)를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점검했다.

(주)레메디가 생산하는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REMEX-KA6)는 저선량, 휴대성 및 이동성이 극대화되어 흉부, 손, 발 등 인체의 X-선 영상촬영이 가능한 의료진단용 휴대용 X-선 촬영장치로, 2017년 출시 이후 FDA, CE인증을 획득하여 미국을 포함한 46개국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백 청장은 강원도 대표 혁신제품 제조기업 (주)레메디의 제조현장을 둘러본 후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은 내부로부터”...강원청 직원들과 호흡하며 정책 실행력 결속

이번 방문에서는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공조달 개혁정책 추진 공유를 위해 강원지방조달청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백 청장은 조달행정 AI 도입과 유연한 조직만들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나누며, “성공적인 정책추진은 현장 및 실무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면서, “직원들이 기존의 틀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담당 부서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병규	(033-260-2205)
		담당자	주무관	최영현	(033-260-2200)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